



관광과 커먼즈

관광커먼즈 개념화를 위한 시론

Tourism and commons: Conceptualizing the tourism commons

김 익 태* · 한 범 수**

Kim, Ik-Tae · Han, Beom-Soo

요약 : 세계적인 ‘공공성 위기’ 시대에 사회과학계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든 사람의 것”을 일컫는 ‘커먼즈’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커먼즈 이론으로 관광 현상을 살펴본 관광학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 연구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커먼즈 이론을 관광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시론적 접근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딘을 시작으로 오스트롬까지 국제학계의 커먼즈 연구와 국내학계의 관련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둘째, 국내의 학계의 관광커먼즈에 대한 선행 연구 내용을 분석하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관광커먼즈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도출했다. 그 결과 학문 연구의 기본인 개념 규정부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물리적 속성에 따른 배제성과 감소성, 사회적 속성에 따른 독점정당성과 경합성 기준을 중복 적용해, tourism commons(관광공동자원)를 “물리적으로 사용자를 배제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독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자연·사회문화·인공 관광자원”으로 정의하고, 관광커먼즈 가운데 “물리적으로 감소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경합성이 있는 관광자원”을 tourism CPRs(관광공동관리자원)로 정의했다. 이 연구는 개념화를 바탕으로 향후 관광커먼즈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관광개발이 관광목적지의 자연과 문화를 파괴하는 ‘관광 역설’의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관광커먼즈 이론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핵심어 : 커먼즈, 관광커먼즈, 관광공동자원, 하딘, 오스트롬, 브리아솔리스.

ABSTRACT : In this age of global 'public crisis,' social science is actively employing the concept of 'commons,' which refers to "everyone's property, not anyone's," in research to solve social problems. However, few studies in tourism academics have examined the tourism phenomenon through the lens of the commons theory. Given this reality,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how to incorporate the theory of the commons into tourism research. To that end, research on commons in international academic circles and related research achievements in domestic academia are reviewed from Hardin to Ostrom. Second,

Received January 10, 2022 Revised March 06, 2022 Accepted March 07, 2022

* 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 박사수료(교신저자). e-mail: kjournal88@gmail.com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Tourism and Recreation, Kyonggi University.

** 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 교수. e-mail: tourway@gmail.com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and Recreation, Kyonggi University.

Copyright ©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CC BY,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of the work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authors and source are properly cited.

previous research on tourism commons was reviewed and synthesized. As a result,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was confusion from the conceptual definition, which serves as the foundation of academic research, and thus subtractability and excludability based on physical attributes, and monopoly legitimacy and rivalry based on social attributes, were applied. Tourism commons are defined as "natural, social, cultural, and artificial tourism resources that cannot be difficult to physically exclude users and that are not justified to monopolize from a social standpoint," and tourism CPRs are defined as "tourism commons that decrease as they are physically used and are socially rivalry." Based on conceptualization, this study proposes a future research direction for tourism commons, with the goal of resolving social dilemmas such as the "tourism paradox."

Key words : Commons, Tourism Commons, Tourism CPRs, Hardin, Ostrom, Briassoulis.

I. 서 론

1946년 박경훈 초대 제주도지사의 제안 이래 중앙정부·제주도·민간업자가 한라산에 관광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10여 차례의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1999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도 2년 만에 백지화되고, 2013년 다른 민간 사업자에 의해 재개된 제주 송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역시 2020년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지 못해 중단됐다. 이런 관광개발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관' 문제이다. 공공재(公共財)인 토지를 (지방)정부에서 개발하고, 사유재(私有財)인 토지를 사기업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경관은 공공재인가? 아니면 사유재인가? 제주 중산간(해발 200~600미터)에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개발할 때마다 불거지는 이슈 가운데 하나인 '지하수 개발' 역시 같은 질문에 부딪힌다. 사유재인 토지 지하에 흐르는 물은 공공재인가? 사유재인가?

학문은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끄는 이론적 원천이라는 점에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의 질문에 대해 관광 현상을 연구하는 관광학계는 어떤 답을 내고 있을까? 이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동안 세계적인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광학계에서 상대적으

로 관심을 덜 켜온 커먼즈(communs) 이론을 지속가능한 관광 연구의 프레임에 접목하기 위해 시도했다. 커먼즈는 "역사적으로 많은 공동체에서, 어떤 자원에 대한 접근이나 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공동체 생존에 필수적인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고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집합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안새롬, 2020)이다. 한국사회에도 과거 비슷한 의미의 공동체 문화가 존재했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담론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학계는 커먼즈를 어떤 우리말로 번역해야 할지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커먼즈적 삶이 분단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의해 파괴돼, 그 의미를 담아내는 현실을 잃게 되며 빚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개념을 정립한 이후, 커먼즈의 역동적 개념은 많은 제한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제도를 뛰어 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과거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던 경관·물·대기 등을 사유화하고 있지만, 이를 공동체에서 함께 향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역시 여전히 남겨 놓았다.

관광학계의 사정은 어떻게? 관광커먼즈(tourism

commons) 연구는 외국 관광학계에서도 활발하지는 않다. 국내 사정은 더욱 열악해 관련 연구는 황무지나 다름없다.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해 개념 연구와 함께 평가 지표를 만들고(이희연·차승훈, 2004), 실천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적용할 지를 놓고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연구(고동완, 2009) 등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또한 공공성의 관점에서 관광학 논의의 장에 공공성을 전면적으로 끌어내거나(이석호, 2013), 관광자원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논의 역시 꾸준히 이어왔다(김상태·박상곤·김동현, 2016). 그럼에도 공공성이나 공공재에 대한 기존 연구는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근거와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공재와 사유재라는 이분법을 넘어 커먼즈적 관점에서 관광 현상을 볼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세계적인 커먼즈 이론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외 학계에서 관광 커먼즈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흐름을 조사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한 결과, 관광커먼즈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념화를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관광 커먼즈 연구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방향도 모색했다.

연구 목적 수행을 위해 커먼즈 연구에 역사적인 획을 그은 Hardin(1968, 1994, 1998)과 Ostrom(1991/2010, 2005, 2009)의 논문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 커먼즈 이론 고찰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에서 국내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2021년 9월 '커먼즈'를 키워드로 검색한 국문 논문 총 61편을 기반으로 하고, 이 논문들의 참고문헌에서 자주 인용한 영문 논문 20편을 추려냈다. 관광커먼즈 논문인 경우 RISS에서 SSCI와 Scopus급 해외학술논문을 대상으

로 'tourism commons'를 키워드로 검색해 영문 논문 26편을 찾았다. 이 문헌을 텍스트로 삼아 내용분석에 집중했다.

II. 커먼즈 이론 고찰

1. 커먼즈의 개념

1) 커먼즈와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커먼즈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가장 유사한 의미로 혼동되는 공공재 개념과 비교해 보자. 신고전파 경제학자로 197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새뮤얼슨은 정부의 공공투자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유재(private goods)와 달리 시장에서 공급할 수 없는 공공재를 구분했다(Samuelson, 1954, 이명훈, 1996에서 재인용). 그는 사유재와 달리 공공재에 감소성(subtractability: 사용에 따라 양이 줄어드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시장에서 상품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공지출을 해야 하는 강력한 논거로 사용됐다. 반면, 근대 재정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머스그레이브는 배제성(excludability: 공급된 재화로부터 누군가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성질) 여부를 사유재와 공공재의 구분 기준으로 제시했다(Musgrave, 1959, 이명훈, 1996에서 재인용).

순수한 사유재와 공공재로 포괄할 수 없는 재화 역시 존재한다. 공공선택론으로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뷰캐넌은 회원 수가 1인이거나 소수인 사유재나, 회원 수가 무한대인 공공재와 달리, 회원들만 사용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 재화를 클럽재(club goods, 또는 '요금제')로 칭했다(Buchanan, 1965, 정영신, 2016에서 재인용).

2009년 여성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Table 1〉 Four types of goods by Ostrom

excludable		non-excludable
subtractable	private goods: food, clothing, automobiles, etc.	CPRs(common pool resources): groundwater basins, lakes, forests, irrigation systems, fisheries, etc.
non-subtractable	club goods(Toll goods): theaters, private clubs, daycare centers, etc.	public goods: peace and security of a community, national defense, fire protection, etc.

Source: Ostrom, 1990/2010, 2005; Choe, 2013, etc.

Ostrom(1933~2012)은 앞선 연구를 기반으로 재화 분류 도식을 완성했다. 감소성과 배제성 기준을 각각 독립 속성으로 규정해, “CPRs”(common pool resources)라는 새로운 범주를 찾아낸 것이다(〈Table 1〉 참조). 이 관점에 따라 Ostrom은 CPRs를 “이용 감소성(subtractability of use)의 정도는 높지만, 잠재적 편익으로부터 사용자들을 배제하기 어려운(difficulty of excluding potential beneficiaries) 유형의 자원”으로 정의했다(Ostrom, 2005).

2) 커먼즈와 공유재(共有財, common property resource)

국내에선 커먼즈를 공유지·공유재·공유자원 등으로 주로 번역해왔다. 공통 개념은 ‘공동소유’를 일컫는 ‘공유’(共有)이다. 소유권(property right) 개념을 포함한 건데, 이는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정의된 소유권이 없는 상태(open access), 즉 모든 이에게 자유로운 자원 접근 권한을 준 상태이다. 둘째, 공동체의 공유 형태(common property)로,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은 이용 권리를 가지지만 배제된 개인들에게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정부 소유 형태(state property)로, 정부가 이용하되 개인에게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기도 금지하기도 한다. 넷째,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private property)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형태이다(Feeny, Berkes,

McCay, & Acheson, 1990).

그런데 소유권은 자원을 운영하는 체계에 영향을 주지만, 그렇다고 운영체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된 소유권이 없을 경우(open access), 자유방임(laissez-faire)으로 관리되지 않아 커먼즈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공동체(communal governance)나 국가 관리(state governance)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개인 소유(private property)인 경우 시장 관리(market governance)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른 형태의 관리 역시 불가능하지 않다(McCay, 1995).

이처럼 현실에서 커먼즈 소유권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소유권과 무관하게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되는 경우도 많다. “common pool”이 자원의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용어라면, ‘common property’는 소유권 제도라는 인공요소를 담은 용어”(정영신, 2014)라는 점에서 커먼즈를 공유재나 공유자원으로 번역할 경우, 공동소유자원(common property resource)과 혼동을 겪게 된다.

2. 학술적 커먼즈 연구의 태동 - ‘비극론’

인류는 고대시대부터 커먼즈 개념을 사용해왔지만, 이를 학술적 관심으로 끌어올린 것은 미국 생물학자 Hardin(1915~2003)이다. 그는 196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커먼즈의 비극(The

trade of commons)』에서 간결한 논리를 제시했다. 개방된 목초지에서 방목하는 합리적인 목동은 방목하는 가축 두수를 늘리려 할 것이며, 이런 ‘합리적 행동’은 필연적으로 커먼즈에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이해 추구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그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호 합의된 상호강제”(mutual coercion mutually agreed upon)(Hardin, 1968)를 주장하고, ‘사유재산권 부여’ 또는 ‘국가권력 개입’이라는 대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Hardin, 1994). Hardin의 주장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켜 사회·자연과학 분야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연구로 이어졌고, 인용빈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Burger & Gochfeld, 1998). 1980년대 초반까지 여러 분야 학자들이 Hardin 이론을 검증하고 정교화하는 데 집중했다(Hardin & Baden, 1977, 정영신, 2016에서 재인용).

Hardin의 주장은 제3세계 근대화 과정에서 공동체가 관리하던 수많은 자연자원을 ‘국유화’하거나 ‘사유화’ 하는 이론적 배경이 됐고(정영신, 2014), ‘보이지 않는 손’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자연 사유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최현·김선희, 2014). 자원 이용자의 내면화된 규범이나 자발성의 가능성을 ‘비극’에 대한 해결책에서 배제했고(정영신, 2016), 커먼즈를 관리하는 공동체와 규약을 보지 못해 “커먼즈를 단지 주인 없는 것과 혼동했다”는 지적도 받았다(Bollier, 2014/2015). “상호 합의된 상호강제”로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 그런 대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논의하지 않았다. 특히 자기이해를 추구하는 개인주의를 비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그런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사회경제 구조에도 주목하지 않았다(윤순진·차준희, 2009).

이런 유형의 비판에 대해 Hardin은 규모가

작은 전통사회 공동체에서는 연장자들에 의해 커먼즈를 통제하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했고(Hardin, 1994). 커먼즈 앞에 ‘관리되지 않은’(unmanaged), 즉 방치된 커먼즈를 문제라고 전제했다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Hardin, 1998).

3. 커먼즈 연구의 확산 - ‘드라마론’

인류학자들은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경험 연구를 통해 Hardin의 논의를 반박했다. McCay와 Acheson 등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커먼즈 관리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정영신, 2014). 이들이 1987년에 편집한 『The Question of the Commons』는 그런 연구의 집대성이다(정영신, 2016).

이들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생태학 등 여러 분야 학자들이 사례분석을 통해 비극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 아님을 입증했다. 자원 성격이나, 소유·법제도, 사회경제 환경 등 여러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관리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즉 소유제도 자체가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으며, 어떤 소유제도도 성공과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Feeny *et al.*, 1990). 그 과정에서 ‘비극’ 테제와 상반되는 ‘커먼즈의 희극’(comedy of the commons) 테제가 1980년대 중반부터 부각됐다(Smith, 1984, McCay, 1995에서 재인용).

특히 Ostrom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 연구자들은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자원관리정책과 연계한 조사를 이어갔다. 이런 경험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면서, 비극에서 희극으로 전환해 온 커먼즈 연구는 ‘드라마’로 인식됐다. 커먼즈는 무조건 비극이나 희극에 이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제도에 따라 성공도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커먼즈의 드라

마(The drama of the commons)』(Ostrom, Dietz, Dolšak, Stern, Stonich, & Weber, 2002)는 이런 시각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안새롬, 2020).

1989년 Ostrom을 중심으로, Netting, Bromley, Feeny, McKean, Berkes 등이 주도한 국제공유재산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common property: IASCP)의 출범으로 커먼즈 연구는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로 진화했다(Dietz, Dolšak, Ostrom, & Stern, 2002). IASCP는 2006년 “property”를 빼고, 국제커먼즈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ommons: IASC)라는 현재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는 재산권 제도를 벗어나 커먼즈 연구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Ostrom과 동료들의 연구는 잠재적 사용자를 배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연자원을 이론화함으로써 자원 배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특히 Hardin에 의해 하나의 공리가 된 ‘커먼즈 비극’의 논리로 모든 자원을 사유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 다양한 반증과 대안으로 반박했다는 점에서, 커먼즈 연구에 획기적인 분수령을 만들었다(안새롬, 2020; 윤순진·차준희, 2009). 이런 학문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그들의 연구는 미시적인 상황에서 협력 제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정영신, 2016), 가장 많은 인원이 만 5천 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례에 근거하고 있어, 큰 규모의 커먼즈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Harvey, 2011). 이에 대해 Ostrom의 제자이자, 『Governing the commons』(Ostrom, 1990/2010)의 역자 안도경은 “의도적으로 소규모를 연구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는 유기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의 연구 전략을 따른 것”이라며, “소규모 자치 관리제도에 대한 연구

로 출발한 그의 제도 연구는 제도이론의 발전에 기여했고, 후속 연구인 사회·생태 체계(SES: social-ecological systems)라는 보다 포괄적인 분석 틀로 대규모 집합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안도경, 2012).

둘째, 그들의 연구에 정치가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그들 논의 대부분은 “바닷가재 어장에서 알프스 목초지까지” 상품생산 커먼즈에 집중돼 있다. 영국 중세 장원의 ‘숲 커먼즈’에서 보듯 농노나 소작농이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common lands”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영주들과의 투쟁 결과이지, 디자인 원리나 내생 변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Caffentzis, 2012). 즉 커먼즈를 좋은 제도 설계로만 이해하면,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사회 세력 간의 적대 같은 정치 문제를 찾지 어렵다는 비판이다.

셋째, Ostrom이 자원관리 효율성과 보존 문제를 중심에 놓고 소유제도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사적소유제도 문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 등을 연구 주변으로 밀어냈다는 비판이다(Johnson, 2004). Caffentzis(2010, 2012)는 국제커먼즈연구협회(IASC)를 ‘신 하딘주의자’(neo-hardinianism)로 부를 정도로, 자본주의 축적을 위해 커먼즈를 사용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자원관리 제도 성격이 강한 커먼즈 연구는 최근 들어 ‘문화 정체성’이자 ‘삶의 방식’, ‘윤리와 내적 감성’(Bollier, 2014/2015) 등의 폭넓은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4. 국내 학계의 커먼즈 연구

한국 학계에서 ‘공유제’란 이름으로 커먼즈 연구를 시도한 것은 2000년대 행정학자들에 의해서다. 주로 공유(公有)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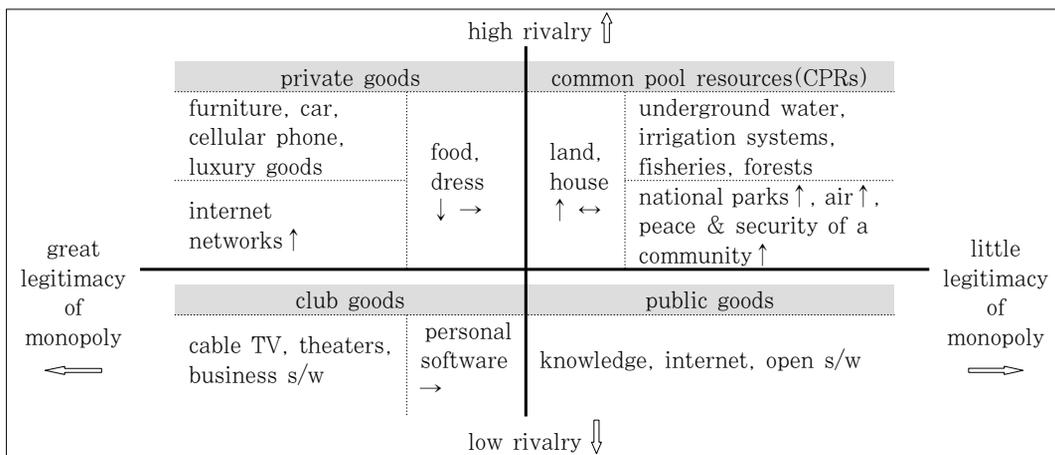
구하거나, 공동자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관심을 뒀다.

2010년대 이후 국내 커먼즈 연구는 다양하게 확산됐다. 특징적인 것은 도시커먼즈 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결합했다는 점이다. 공적 공간 확대를 요구하는 ‘도시권’ 대신에, 마르크스주의 또는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와 결합해 토지는 모두의 것이라는 입장에서, 도시거주자와 외부인 모두 향유할 수 있는 ‘도시커먼즈’ 개념을 제시하려 한 곽노완(2011)이나, 대안적 도시이론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커먼즈를 동아시아 발전주의 도시화 맥락 속에서 개념화를 시도한 황진태(2016) 등이 이런 흐름에 해당한다. 정영신(2014, 2016, 2017; Jeong, 2018)은 한걸음 더 나가 자원관리를 넘어 커먼즈의 새로운 이해 방식으로서 ‘커먼즈 정치론’(이후 ‘권리-사회운동론적 접근법’으로 수정했다)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대상도 늘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을 분석한 홍덕화(2019) 등의 연구는 전력산업을 커먼즈 관점에서 재해석한 사례이고, 저출

산·고령화 현상으로 드러난 사회재생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커먼즈’에 주목한 백영경(2017) 등은 복지 분야를 커먼즈 관점에서 연구했다. 전환담론에 주목해 대기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동의 것으로 바라보고자 한 안새롬(2020) 등은 ‘대기커먼즈’ 논의를 펴나갔다.

최현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역시 눈에 띈다. 그들은 공동체 성격이 강한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동목장·지하수·바람 등 공동자원의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 탐구를 지속하고 있다(김선필, 2013; 최현, 2013, 2014, 2019; 최현·김선필, 2014; 최현·파이성성, 2015; Choe & Yun, 2017). 최현(2019)은 경제학에서 정의한 배제성과 감소성 대신, 사회적 속성인 독점 정당성(legitimacy of monopoly)과 경합성(rivalry)을 기준으로 자원을 분류했다. 자원의 독점 사용이 사회적으로 정당한지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와 함께 Ostrom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했던 감소성과 경



Note 1. Bold arrows(⇔) indicate the direction of intensity of social attributes.

Note 2. Narrow arrows(→) indicate the direction of historical fluctuations.

Source: Rewritten by researchers based on Choe & Yun, 2017; Choe, 2019.

〈Figure 1〉 Reclassification of resources on the basis of social attributes

합성을 구분했다는 특징이 있다. 사용할수록 줄어들다는 사물 자체의 속성으로 감소성을 이해한 반면, 자원의 사용을 놓고 다룬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속성으로 경합성을 본 것이다(〈Figure 1〉 참조).

이 시각은 같은 자원이라 하더라도 역사·사회·윤리·공간에 따라 다른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감소성 있는 공기가 과거엔 경합성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산업화 이후엔 경합성이 커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역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오픈 s/w의 경우 공공재로 사용되고, 비즈니스 s/w는 클럽재로 사용되며, 클럽재인 개인 s/w가 공공재로 다뤄지기도 한다. 〈Figure 1〉에서 화살표로 표시하고, 점선으로 영역을 구분한 것은 같은 자원이라도 사회 맥락에 따라 독점정당성이나 경합성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최현(2019)은 commons(공동자원)를 "잠재적인 사용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자연 자원이나 인공 시설"로 정의하고, "그 중에서도 경합성 있는 자원을 CPRs(공동관리 자원)의 특성으로 규정"해, 공동자원과 공동관리자원을 구분했다.

Ⅲ. 관광커먼즈 연구

1. 관광커먼즈 연구의 시작

1968년 Hardin의 논문으로 학문적인 논의에 들어간 커먼즈 이론을 관광 현상에 접목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눈에 띈다. 관광 경관을 중심으로 커먼즈 문제를 연구한 듀크 대학의 Healy(1994)가 최초이다. 그는 Hardin이 제기한 '커먼즈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관광 현상에도 나타

난다고 봤다. 대표적인 비극은 '과다 사용'(overuse)과 '투자 유인(investment incentive)의 부족'이다. 누구 소유도 아니기에 자원의 질을 높이고 유지하는데 투자하기보다 사용하는 데만 집중하다보니, 혼잡과 밀집으로 자원에 상처를 주고,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의 질을 높이고 유지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투자동기가 사라지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자원의 보전과 향상을 위해 투자한다 해도 투자자가 보상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공공연하게 무임승차(free-riding) 유혹에 빠지게 된다. 관광학에서 관광객 수용력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커먼즈 비극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경관을 중심으로 관광커먼즈 유형을 소유 관계 관점에서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사적 레크리에이션 경관(private recreational landscape), 둘째, 정부에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 경관(government-managed recreational landscapes), 셋째, 공유재산 체제(common property regimes)이다. 첫째 유형은, 비극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 규제를 잘하는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둘째 유형은, 정치 의지가 부족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비극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셋째 유형은 새로운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관광에 적용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세 형태가 섞여 있는 혼합된 재산권리 체제(mixed property rights regimes)인데, 다양한 상황에서 이 체제의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연구는 커먼즈 이론을 관광 현상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Hardin 이론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커먼즈 연구의 최신 성과를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고, 소유권에 기초해 경관자원 유형을 분류한 점에서, 커먼

즈의 동태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무엇보다 보편성의 커먼즈와 특수성의 관광 커먼즈 간에 개념적 차별성을 규명하는 데도 부족했다.

2. 관광커먼즈의 개념화 시도

1990년을 전후해 Ostrom을 비롯한 커먼즈 연구자들이 CPRs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지만, 관광커먼즈에 대한 개념 정의는 10여 년 이상 뒤쳐진 21세기에 들어서야 그리스 에게해(Aegean) 대학 관광지리학자 브리아술리스(Briassoulis)에 의해 시도됐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관점에서 커먼즈를 연구한 Briassoulis(2002)는 관광커먼즈를 Jafari가 제시했던 ‘관광배경요소’(background tourism elements: BTEs), 즉 자연·사회문화·인공 자원 등 3가지 그룹과 동일시했다. 경관을 중심으로 연구한 Healy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광커먼즈 연구 대상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는 2002년 논문에서 CPRs 개념을 정리한 뒤, 관광커먼즈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CPRs는 특정 기간 동안 그 양이 한정된, 사용의 비배재성과 감소성을 특징으로 하는 천연적, 인적 자원이다. 이는 잠재적 사용자들 간의 경쟁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CPRs는 대기, 수자원, 해양, 어업, 생태계, 숲, 야생동물, 경관, 방목 시스템 등이다. 비전통적인 CPRs는 운송 시스템, 항만, 도시 지역, 인터넷, 유전자 데이터, 지적 자원, 사회 경제적 비용 및 편익, 예산 등이 그것이다... 관광커먼즈는 관광지와 그 주변 지역에서 소유하는 자원의 전체 스펙트럼을 구성한다. 이런 점에서 관광커먼즈는 관광 상품과 일치한다... 관광커먼즈는 자연자원과 유 무형의 인공적인 요소로 구성된 이질적이고 다양한 것이다 (Briassoulis, 2002).

이 정의에서 ‘비배재성’과 ‘감소성’이라는 속성은 Ostrom이 정의했던 CPRs 개념과 동일하다. 눈여겨 볼 대목은 관광커먼즈를 관광상품과 동일시하면서 제시한 ‘이질성’(heterogeneity)과 ‘다양성’(variety)이라는 특성이다. 관광커먼즈를 자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심과 열망, 기대를 가진 이질적인 기능과 다양한 사용자와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자원의 임시 사용자인 관광객과 지속적인 사용자인 주민들 간에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물 부족 지역에서 주민들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하는 관광객들이 오남용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외부 투자자(또는 관광객)들은 규범이나 행동, 자원 사용 패턴에서 지역 공동체와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질적이고 다양한 그룹들 간에 자원 사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경쟁은 과도한 이용과 자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주민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 경우 그동안 오랫동안 행사한 관리권 조차 사라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관광커먼즈의 사용권이 어떤 그룹에게 있는가하는 ‘전용의 문제’(appropriation problem)를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Briassoulis(2015)는 후속 연구를 통해 관광객·주민의 활동과 자연·사회문화·인공자원 간의 상호작용을 관광커먼즈 개념에 담아 정의했다. 관광커먼즈의 ‘자연자원’으로는 공기, 기후, 수공간, 바다, 해변, 호수, 강, 지형학적 형태, 생태 시스템, 숲, 목초지, 산, 지질학적 형태, 야생 등을 꼽았고, ‘사회문화자원’으로 고고학적·역사적·전통적·현대적인 유형자산(기념물, 건물, 정착촌, 동네, 교회, 수도원, 묘지 등)과, 수호신·전통·지역문화·지역이벤트·전통음식 등의 무형자산을 들었다. ‘인공자원’으로는 관광 인프라인 숙박시설(호텔, 빌라, 관광마을, 야영 시설, 에코 빌리지, 농촌민박 등)과 특별 시설(스키장, 스파, 골프장, 마리나 등), 교통·에너

지·통신·수도·하수·쓰레기처리 등 지역 기반시설, 건강·교육·여가시설, 주유소·센터카 등 부수적 시설, 지역 주택·상업·오락·산업시설 등을 포괄했다. 이런 자원이 관광객 활동(여행, 숙박, 관광, 오락 등)과 주민 활동(주거, 농업, 산업, 상업, 여가 등)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둘러싼 경관(넓은 풍경, 광활한 풍경, 도시경관, 농촌 경관, 해양경관, 항기경관, 소리경관)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으로 관광커먼즈를 정리했다 (<Figure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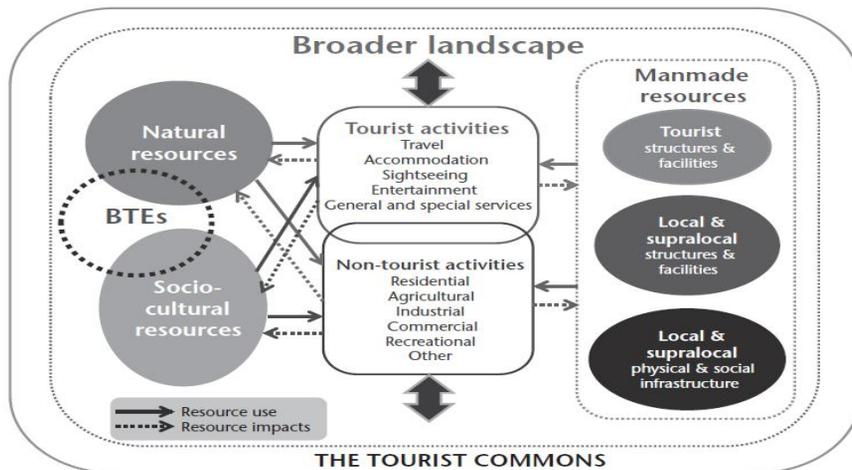
그는 특히 관광커먼즈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지역 자원을 사용하는 외부 사용자(관광객 및 관광기업)가 기존 관리 규칙에 간섭해 커먼즈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민은 물론 관광객과 관광기업 간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 시스템에 의해 조정된다고 봤다. 때문에, 관광커먼즈는 적은 사용자나 단일 사회 문화 사용자 그룹에서 사용하는 단순한 CPRs보다 상당한 사회 문화적 이질성과 다양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공간 변동성'(spatio-temporal variability)과 '사용의 비대칭성·동시성·예

측 불가능성'(asymmetry, simultaneity and unpredictability of use)을 관광커먼즈의 특성으로 추가했다. 관광커먼즈는 공간과 시간에 걸쳐 비대칭적이고 불균일한 사용을 초래하기에 예측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과제(조정, 갈등 해결, 비효율성 제거)를 제기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한 관광은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주민 활동도 파괴할 수 있다 (Briassoulis, 2015)고 경고했다.

3. 관광커먼즈 연구의 흐름

1) 국제학계

Healy를 시작으로 Briassoulis를 거치며 관광커먼즈 연구 논문은 현재까지 30편 가까이 발표됐다. 타 학문 분야의 커먼즈 연구와 비교해보면 연구량이 미미하긴 하지만, 관광커먼즈 연구는 여러 국적의 연구자와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이뤄졌다. 경관에서 시작한 연구대상 역시 이후 관광숙박업과 생태관광, 야생동물관광, 문화자



Source: Briassoulis, 2002; Briassoulis, 2015

<Figure 2> The tourism commons

원 등으로 확대됐다(Table 2) 참조).

Mortazavi(1997)는 관광커먼즈 비극으로 나타나는 과다사용 위험에 대해 *allemansträtten* (모든 사람들의 권리)라는 북부 유럽 문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접근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극 문제를 풀기 위한 경제 이론으로 요금을 부과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장치들을 제시하는 게 보통이지만,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사유지 개방의 대안으로 유럽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배회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공공접근권'(the right of public access)에 주목한 것이다.

Holden(2005)은 Hardin의 비극 이론 중에서 간과했던 인간 행동의 도덕적 변화에 주목해, 관광 이해 당사자들의 행동에 대한 환경 윤리의 중요성과 영향을 분석했다. 커먼즈 비극의 대안으로 '상호강제'를 제시한 Hardin에 대해, 이는 역시 공공기관의 강제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윤리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aly(2006)는 후속 연구를 통해 120년 역사의 국가공기업인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공원 위원회가 광범위한 법적·재정적 힘으로 12년 전 자신이 제기했던 '과다 사용'과 '과소 투자'라는 관광커먼즈 비극 문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했는지를 연구했고, Pintassilgo and Silva(2007)는 관광 숙박산업을 다루면서, 개방형 접근이 경제·환경적 커먼즈 비극을 초래하고, 결국 돈을 지불하려는 의지가 낮은 관광객들로 특징지어지는 대중 관광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경제수학적으로 입증했다. 그들의 연구는 관광이 관광업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기업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Bimonte(2008)는 관광은 변화하는 관광객과 안정된 거주자의 만남이라는 점에 착안해, 많은 경우 참가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중요한 환경

적 측면을 알지 못하는 전략적 게임에 임하는 베이시언(bayesian) 게임이론을 커먼즈 비극 이론에 적용했다. 그 결과 양쪽 참여자가 이용보다 보존을 선호하고 무임승차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속 불가능한 경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민들이 그들의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유형과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주요한 책임이 있다는 흥미로운 결론을 이끌어냈다.

Stronza(2010)는 민간 기업과 지역 사회 간 공동 벤처 생태관광 프로젝트에 대해 12년에 걸쳐 수집한 종적·민속학적 데이터를 이용해 페루 아마존 원주민들을 사례로 생태관광과 커먼즈 관계를 분석했다. 커먼즈 관리에 유리한 결과로는 보존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 수익, 생태관광 참여에 따른 강화된 조직, 외부 행위자의 지원 네트워크 확장 등이 있고, 반대의 부정적 결과로는 개인 생산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경제 수익, 전통적인 사회 관계와 제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새로운 정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 등으로 꼽았다. 향후 연구 과제로 어떻게, 왜, 어떤 지역 사회 기업들은 커먼즈 경영을 지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새로운 분열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Moore and Rodger(2010)는 관광 관리 체계에서 CPRs 개념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2010년대에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야생동물 관광을 CPRs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활성화 조건의 목록을 도출하고, 서부 호주의 Ningaloo 해양공원의 고래상어 관광을 사례로, 이 조건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했다.

Heenehan, Basurto, Bejder, Tyne, Higham, and Johnston(2014)은 Ostrom의 제도분석틀을 분석 렌즈로 사용해 하와이 스피너 돌고래 관광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 기반

한 보존이 자발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Ostrom의 속성 중 일부를 키워낸다면 잠재적으로 글로벌 관리 모델로 이어지는 방법론을 사용해 돌고래 개체군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더 생산적인 제도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Pirotta and Lusseau(2015)는 야생동물 관광커먼즈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접근 방식을 사용해 서로 다른 관리 체제(세금, 세금과 보조금, 배출 상한제, 배출권 거래제)가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했고, Marcinek and Hunt(2019)는 커먼즈 이론을 아마존에 적용해 관광과 문화커먼즈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Alipour and Arefipour(2020)는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해, 지중해 북키프로스 섬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공 부문과 준정부 기관, 민간 부문, NGO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연구했고, Mancini, Leyshon, Manson, Coghill, and Lusseau(2020)도 야생동물 관광커먼즈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커먼즈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안된 거버넌스 구조가 야생동물 관광지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행위자 기반모델(individual-based model)을 적용해 분석했다.

Romão, Okada, Machino, and Nijkamp(2021)은 일본 홋카이도 동부의 구시로시에 있는 대표적 관광지인 국립공원 아칸 호수를 사례로 관광지 관리의 참여적 과정을 통한 공동자원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관광지 관리기구(destination management organisation: DMO)의 전략적 역할에 통합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했고, Zagarkhorloo, Heijman, Dries, and Batjargal(2021)은 몽골의 목동 공동체 기반 관광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ES) 분석틀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2) 국내학계

국내 관광학계의 관광커먼즈 연구는 Hardin 이론을 바탕으로 과다사용과 무임승차, 투자동기 문제를 고찰한 이승길(2017)이 유일하다. 관광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타 학계로 넓혀 봐도 사회학계의 정영신(2017)과 지리학계의 정남식(Jung, 2020)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승길(2017)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커먼즈 비극과 관광커먼즈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며, 관광정책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비극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연구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Hardin 이론에 입각해 관광커먼즈 문제를 과다 사용, 무임승차, 투자동기 부족 등으로 요약하고, 대안으로 정부 개입, 사유화, 공동체 위임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커먼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내 관광학계의 사실상 유일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의 연구 자체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론 바탕이 1960년대 Hardin에 머물러 있는 점은, 최근 커먼즈 연구 성과에 비취볼 때, 크게 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영신(2017)은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도 선흘리 마을과 선흘곶·동백동산을 사례로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그간 한국 연구자들이 Ostrom 논의를 따라 CPRs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커먼즈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분류한 추상적인 자원 개념인 CPRs와, 특정한 역사문화 맥락에 파묻혀 있는(embedded) 커먼즈를 개념적으로 분류했다. 이런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총유적 관행으로 이용하던 커먼즈가 근대적인 소유제도 도입 이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전환됐지만, 커먼즈와 커뮤니티의 관계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오히려 이전의 폐쇄적인 커먼즈를 보다 개방적이고 생태적으로 전환시켜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나간 점에 주목했다. 즉 '과거 커먼즈'가 전통적 규

〈Table 2〉 Comparison of research cases on tourism commons

publish	researcher	academic field	methodology	subject of study
1994	Healy	Environmental policy	Literature review	Theoretical study
1997	Mortazavi	Economics (recreation, tourism)	Economic mathematics	Theoretical study
2000	Vail & Hultkrantz	Economics/ Transport, Society	Case study	Nature-based tourism
2002	Briassoulis	Geography	Literature review	Theoretical study
2005	Holden	Environment, Tourism	Literature review	Environmental ethics
2006	Healy	Environmental policy	Case study	Niagara Falls
2007	Pintassilgo & Silva	Economics	Economic mathematics	Accommodation industry
2008	Bimonte	Political economy	Game theory	Theoretical study
2010	Stronza	Recreation, Park, Tourism	Ethnography /Case study	Ecotourism
2010	Moore & Rodger	Environmental science	Agrawal model*	Wildlife tourism
2014	Huang & Huang	Economics	Economic mathematics	Ecotourism
2014	Heenehan <i>et al.</i>	Marine science/ Veterinary science/ Tourism	IAD Model** /Case study	dolphin watching, ecosystem-based management
2015	Briassoulis	Geography	Literature review	Theoretical study
2015	Pirotta & Lusseau	Biological, Environmental science	Economic mathematics	Wildlife tourism
2017	Lee	Tourism	Literature review	Theoretical study
2017	Jeong	Sociology	Depth interview /Case study	Ecotourism
2019	Marcinek & Hunt	Recreation, Park, Tourism	Ethnography	Cultural commons in the Amazon
2020	Alipour & Arefipour	Tourism	Depth interview /Case study	Mediterranean island(North cyprus)
2020	Mancini <i>et al.</i>	Biological Sciences Computing Sciences	Individual-based model	Wildlife tourism commons
2020	Jung	Geography	Design principles theory/Case study	Agriculture tourism resource
2021	Romão <i>et al.</i>	Tourism/ Economics	Literature review	Kushiro-Akan (Hokkaido, Japan)
2021	Zagarkhorloo <i>et al.</i>	Economics/ Life Sciences	SES Model*** /Case study	Hustai National Park in Mongol

* Ostrom의 제도 디자인 원리를 기반으로 만든 Agrawal 모형은 Agrawal, 2003, p. 249를 참조.

** 제도분석(IAD)에 관해서는 Ostrom, 2005, p.15 등을 참조

*** 사회생태체계분석(SES)에 관해서는 Ostrom, 2009, P.420 등을 참조

범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과 문화 속에서 유지됐지만, '현대 커먼즈'는 주민과 시민들 스스로 인식 전환과 실천(commoning)을 통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남식(Jung, 2020)의 연구는 Ostrom 이론 가운데 '제도 디자인 원리'를 남해 가천 다랑이 논(명승 제15호)이라는 농업경관 자원에 적용한 사례연구이다. 그는 한국에서 관광자원 개발 현장에 Ostrom의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연구가 아직 없으며, 농어촌의 관광자원 같은 작은 공동체에서 사회적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데 Ostrom 이론이 귀중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국가 및 시장 중심의 커먼즈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커먼즈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영신과 정남식의 연구는 보편적 의미의 커먼즈 이론에 입각해 관광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고, 특수한 차원의 관광커먼즈에 대한 관점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국내외 관광커먼즈 연구 사례를 <Table 2>로 정리했다.

IV. 논의 및 시사점

1. 관광커먼즈 선행 연구의 특징과 한계

1994년 Healy 이후 그간의 관광커먼즈 연구를 종합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연구 초기 Healy와 Briassoulis 이후 이론 연구에 큰 진척은 없다. 특히 2010년 이후엔 특정 사례를 놓고 커먼즈 이론 모형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로 자연 기반 관광과 자연 보호 지역의 생태관광에 대한 사례 연구에 관광커먼즈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관광학이 기본적으로 실용학문이다

보니, 새로운 이론 연구보다 기존 이론을 적용해 관광 현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연구자들은 연구 초기 Hardin의 비극론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Ostrom 모델 -제도 디자인, IAD, SES 모형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 커먼즈 학계의 연구 성과를 흡수해 관광학 연구에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시간이 흐를수록 학제적 접근이 활성화되고 있다. 연구 초기 환경정책학이나 경제·사회·관광학 등의 관심 주제였던 관광커먼즈는 2010년 이후 해양·수의·생물·컴퓨터과학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와 협업으로 확대됐다. 이는 Ostrom 연구의 핵심 문제 인식 가운데 하나인 자연과학 분야 연구 성과를 흡수하려는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커먼즈 이론을 관광 현상에 적용한 선행 연구가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첫째, 학문 연구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개념화 단계부터 혼란을 겪고 있다. 관광커먼즈 연구가 관광커먼즈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tourism commons"와 "tourism CPRs"를 뒤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사유재산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승길, 2017)에서, 자연·사회문화·인공자원 모두를 관광커먼즈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Briassoulis, 2002, 2015)까지 극단의 스펙트럼으로 분산되고 있다.

이승길(2017)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투자동기 역시 충분하기에, 커먼즈 비극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비극 역시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커먼즈 연구 초기 Hardin 이론의 한계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공기·물·풍경·해변·산·자연공원 등과 같은 관광활동의 배경이 되는 기본 요소들을 본질적인 관광커먼즈라고 규정하고, 누구도 소유할 수 없

는 아름다운 경관에 위치한 호텔·펜션·골프장 처럼, 커먼즈 사유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접근성 배제라는 특성과 투자동기 확보라는 특성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관광커먼즈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소유권 개념을 관광커먼즈 연구에 집어넣으면서 나타난 혼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장실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커먼즈 연구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McCay(1995)가 ‘재산권과 거버넌스 체계’의 불일치를 언급하며 사유재산 역시 공동체 거버넌스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논증했듯이, 커먼즈는 소유 관계를 뛰어넘어 연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품(자원)을 관광커먼즈를 보는 것 역시 과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른 상품과 공동자원을 구분하지 못해 혼란을 자초할 뿐이다. 관광커먼즈를 관광상품과 동일시한 Briassoulis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의 연구는 관광커먼즈에 대한 개념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했으며, 연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품(자원)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경우, 관광커먼즈 연구와 관광자원 연구에 어떤 차이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 관광커먼즈 연구 대상을 ‘자연자원’에 한정하고 있다. 하나의 자원도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달리 인식하고 상이하게 사용하곤 한다. 예를 들어 해안 전망이나 일몰을 볼 수 있는 사용권한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지만, 이를 커먼즈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공동체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 자원 그 자체를 넘어, 관광지의 광범위한 지리·사회경제·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동태적 차원으로 관광커먼즈 연구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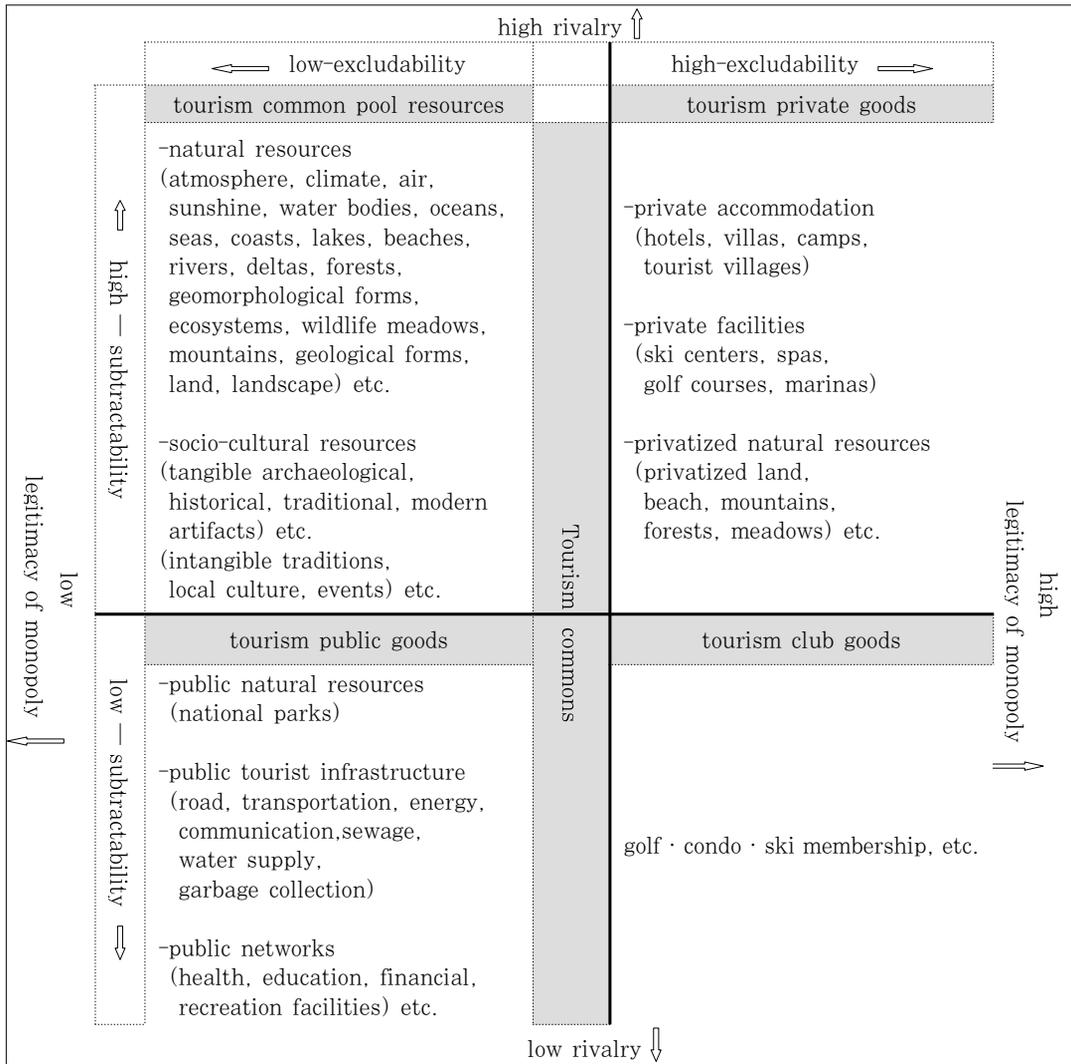
셋째, 방법론으로서 Ostrom 모델을 자주 차용하고 있는데, 관광 현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는 없는 지 검증이 부족하다. 이는 관광학계에서 연구의 양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관광커먼즈의 개념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선행연구를 종합해 관광커먼즈(tourism commons)의 개념을 정의해보자. 물리적 속성에 따른 배제성(excludability)과 감소성(subtractability) 기준과 함께, 사회적 맥락에 따른 독점정당성(legitimacy of monopoly)과 경합성(rivalry) 기준을 중복 적용하면, tourism commons(TC)란 “물리적으로 사용자를 배제할 수 없거나 배제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서 독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자연·사회문화·인공 관광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우리말로 ‘관광공동자원’(觀光共同資源)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사적으로 독점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자원이라는 의미로 관광커먼즈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관광커먼즈 가운데 “물리적으로 사용할수록 줄어드는 감소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경합성이 있는 관광자원”을 tourism CPRs(tourism common pool resources)로 정의하고, 우리말로 ‘관광공동관리자원’(觀光共同管理資源)으로 부르고자 한다. 관광공동자원 중에서도 감소성과 경합성이라는 특징 탓에 더욱 세밀한 공동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변역이다. 이런 개념 정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 같은 상품(자원)이라 하더라도 성격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숲이나 토지를 예로 들어 보면 국립공원을 공공재로, 사유림을 사유재로



〈Figure 3〉 Tourism goods(resources)

분류해야 하겠지만, 이를 공동관리자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 숲(토지)이 인류 공동의 생존에 필요하다면, 공동체에 의해 관리해야 할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관광커먼즈 연구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는 경관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유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관 사유화 갈등을 보자.

여기서 경관은 사유재로 다뤄져 개인(사기업)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원의 감소성

과 경합성, 낮은 독점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모든 사람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공동자원의 문제가 권력 관계, 즉 정치의 문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하나의 자원을 놓고 사유화나 국유화나 커먼즈화나 결정은 사회세력 간의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커먼즈의 동적인 측면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역사학자 Linebaugh (2008/2012)는 ‘common’에 대해 ‘common land’, ‘common rights’, ‘common people’ (commoner), ‘common sense’ 등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커먼즈를 천연자원으로만 이해할 경우 뜻을 오도하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커먼즈를 자연관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사회 관계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관리하는 사회적 관습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Bollier, 2014/2015) 커먼즈의 동적인 측면을 ‘커머닝’(commoning)이라고 일컫는다. 커머닝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서로를 돌볼 것이라는 기대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관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커먼즈의 본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커머닝(tourism commoning)이란 “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관광자원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광커머닝’을 우리말로 ‘관광의 공동관리’ 또는 ‘관광의

공동자원화’로 번역해 사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관광 현상에서 나타나는 ‘커먼즈의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이 관광커먼즈 연구의 핵심 과제이다. “관광공동자원을 둘러싼 사회 공동체와 사회 규약 간의 동태적 관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생태 체계”, 즉 ‘관광공동자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비극의 관광커먼즈를 희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개념을 <Table 3>으로 정리했다.

3. 관광커먼즈 연구의 향후 방향

앞으로 관광커먼즈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까? 앞서 연구자가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해 Briassoulis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는 향후 연구과제로 관광커먼즈의 모든 요소를 개별적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관광커먼즈의 무형·유형 요소와 관련된 위협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Briassoulis, 2015).

<Table 3> The concept of the TC(tourism commons)

Term(English)	Term(Korean/Chinese)	Concept
Tourism commons	관광공동자원 (觀光共同資源)	-Natural, social, cultural, and artificial tourism resources that cannot or are difficult to physically exclude users, and that it is not justified to monopolize any individual or group from a social point of view -Tourism public goods + Tourism CPRs
Tourism CPRs (Tourism common pool resources)	관광공동관리자원 (觀光共同管理資源)	Tourism commons that decrease as they are physically used and are socially rivalry
Tourism commoning	관광의 공동관리 (觀光 共同管理) 관광의 공동자원화 (觀光 共同資源化)	-Dynamic aspects of tourism commons -Community management of tourism commons for the benefit of all people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it belongs to all of us.
Tourism commons system	관광공동자원체계 (觀光共同資源體系)	-A social and ecological system formed through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ommunities and social protocols surrounding tourism phenomena -Tourism commons + social community + social protocol

이를 위해 첫째, 무엇보다 소유권에 대한 고루한 인식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근대 국가가 소유권의 바탕으로 만들어 지긴 했지만, 절대적이며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무제한적 자본축적을 정당화하던 근대 소유권 이론은 세계적인 경제 양극화 현상에 맞닥뜨리며 도전받고 있다. 2015년 대법원이 2조 원 넘는 투자를 약속하고 개발에 착수한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릴 정도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사적 소유인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에 대해서도 사회의 눈높이와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둘째, 연구대상으로서 행위자의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관광객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관광현상을 연구할 때 연구자들이 관광객들을 다른 모든 잠재적 사용자보다 우선시하다 보니, 주로 관광객 행태에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Bimonte(2008)는 가난한 나라의 지역 사회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들은 그들의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유형과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주요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어떤 자원을 공유하고 관광의 '간섭'에 개방할 것인지, 어떤 형태와 조건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양도할 수 없는 삶의 영역에 속하도록 할지에 대해 합의를 찾아야 한다.

셋째, 연구대상으로서 자원 문제와 관련해 인간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자원을 생명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관광자원은 더 이상 소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Holden(2005)이 강조한 환경 윤리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 윤리가 관광 이해 관계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더 나아가 관광교육을 위한 주요 소재로 관광커먼즈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론 연구에 있어 개념화를 바탕으로 관광커먼즈 평가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커먼즈 이론이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고, 커먼즈 개념에서 도출한 속성들을 지수나 지표로 만들 수 있다면, 보다 실증적인 데이터로 학문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사례와 관광 정책, 법제도를 기존 일반 커먼즈 이론에서 만든 연구 모형에 적용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Ostrom 모형이 커먼즈 연구의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관광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진보된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 사회현상은 이제 하나의 학문 틀로 해석하기엔 너무 복잡해졌고, 관광현상도 마찬가지다. 세계적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타 학문, 특히 자연과학 분야와의 협업은 관광학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Hardin의 문제제기 이후 Ostrom을 거쳐 1990년대 인터넷 보급과 함께 나타난 오픈 액세스 운동으로서의 정보 커먼즈 그룹(Heller, Eisenberg),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커먼즈를 해석하는 자유주의 그룹(Bollier), 자원관리 체계를 넘어 삶의 방식과 윤리의 문제로 확장한 개혁주의 그룹(Bauwens, Niaros), 반자본주의 저항 언어로 해석하는 변혁적 커먼즈론(Negri, Hardt, Caffentzis, Federici)까지 커먼즈 이론은 다양한 담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커먼즈 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적극 흡수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동태적인 정치생태학적 시각으로 연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사회변동 속도나 폭이 큰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커먼즈 변동이 이용자들 간 협력 부재로 나타나기보다, 자원체계나 공동체 자체의 파괴, 권력자에 의한 자원의 강탈, 국가 주도의 개발주의 정책과 같은 사실상

커먼즈 파괴정책에 의해 이뤄진다(정영신, 2016)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공동자원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관광커먼즈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한다면, 관광공동자원체계의 모형을 이론적으로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커먼즈 이론 연구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관광커먼즈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했다. 물리적 속성과 사회적 맥락을 중복 적용한 결과, tourism commons를 ‘관광공동자원’으로, tourism CPRs를 ‘관광공동관리자원’으로 정의하고, 관광공공재와 관광공동관리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광커먼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커먼즈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사회·공간에 따라 변동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광커먼즈’와 ‘관광커먼즈체계’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를 통해, 관광커먼즈 연구를 자연자원 자체에 대한 연구로 한정할 수 있는 부작용도 경계했다. 과다사용이나 무임승차, 투자동기 부족 등 관광커먼즈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 관계라는 동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광커먼즈 연구의 핵심 과제는 결국 ‘관광공동자원체계’를 어떻게 만드는 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기존 국내외 관광커먼즈 연구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도 제시했다. 소유권의 벽을 넘어 커먼즈적 관점에서 자원을 바라봐야 한다는 전제 아래, 연구 대상으로서의 행위자 문제에 있어서 주민과 관광객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과, 환경 윤리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을 넘어 자원을 연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론 연구의 방향으로 측정 평가 척도

와 연구 모형 개발과 함께, 학제적 접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연구의 이론적인 시사점은 아직 관광학계에서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던 커먼즈 이론을 관광현상 연구에 접목하기 위해 학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개념 정의를 시도했다는 데 있다. 이는 그간 공공재와 사유재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공공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자원을 공공재적 측면에서 바라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관광자원의 성격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관광학계 일부에서는 “일반적 자원과 달리 관광자원은 개별적 이용에 의해 소모되지 않는 특성”(이순구·박미선, 2011)을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관료주의와 특권화로 변질되곤 하는 공공 주도 개발이나, 자본의 이해관계로 작동되는 민간 개발로 인해 “자원을 소모하면서” 오히려 관광(자원)개발이 관광지의 자연과 문화 환경을 파괴하는 ‘관광 역설’(tourism paradox)을 일으키곤 한다. 관광커먼즈 이론은 이런 사회적 딜레마를 풀기 위한 새로운 이론 프레임으로 기능할 수 있고,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무적인 시사점은 관광 목적물 모두를 관광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관광자원 개발 현장에서 커먼즈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대안을 어떻게 만들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를 찾는 데 일종의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거듭하는 현실에서 공동체 중심의 자원관리의 성공 모델, 즉 공동자원체계를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있어 관광 윤리의 핵심 이론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연구는 시론 연구라는 점에서 혼란스러운 개념을 정의하는 데 머무른 근본적인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여전히 일반적인 커먼즈 이론과 구별되는 관광커먼즈 이론의 독자성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는 일반 커먼즈와 구별되는 관광커먼즈의 특수한 속성을 보다 명확하게 추출해내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론 연구라는 점을 감안해도 국내의 관광 정책이나 법제도와 연계해 논의했다면 보다 풍성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국내 관광학계의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Kim, Ik-Tae: Methodology, Literature Review and Writing (Original draft preparation).

Han, Beom-Soo: Conceptualization, Supervision and Validation.

References

- Agrawal, A. (2003). Sustainable governance of common-pool resources: context, methods, and politic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2(1), 243-262. doi: 10.1146/annurev.anthro.32.061002.093112
- Ahn, S. R. (2020). Commons as transition discourse: a conceptual basis for the study on atmosphere as commons. *ECO*, 24(1), 333-370. doi: 10.22734/ECO.24.1.2020.06.009
- Ahn, T. K. (2012). Beyond the tragedy of commons: the evolution of the system for managing CPRs. *The Korean Economic forum*, 5(3), 117-129.
- Alipour, H., & Arefipour, T. (2020). Rethinking potentials of co-management for sustainable common pool resources (CPR) and tourism: the case of a mediterranean island. *Ocean & Coastal Management*, 183, 104993. doi: 10.1016/j.ocecoaman.2019.104993
- Bimonte, S. (2008). The tragedy of tourism resources as the outcome of a strategic game. *Ecological Economics*, 67(3), 457-464. doi: 10.1016/j.ecolecon.2007.12.020
- Bollier, D.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배수현 역). 서울: 갈무리. (Originally published in 2014)
- Briassoulis, H. (2002). Sustainable tourism and the question of the comm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4), 1065-1085. doi: 10.1016/S0160-7383(02)00021-X
- _____. (2015). Tourism and common pool resources. In: Hall, C.M., Gossling, S., & Scott, D. (eds), *Routledge handbook on tourism sustainability*. London: Routledge. doi: 10.4324/9780203072332.ch6
- Burger, J., & Gochfeld, M. (1998). The tragedy of the commons 30 years later.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0(10), 4-13. doi: 10.1080/00139159809605104
- Caffentzis, G. (2010). The future of 'the commons': neoliberalism's 'plan b' or the original disaccumulation of capital? *New Formations*, 69, 23-41. doi: 10.3898/NEWF.69.01.2010.
- _____. (2012). A tale of two conferences: globalization, the crisis of neoliberalism and the question of the commons. *Borderlands*, 11(2), 1-34.
- Choe, H. (2013). Redefining common pool resource and the case of common meadows in jeju island. *Economy and Society*, 98, 12-39.
- _____. (2014). Studies on commons in japan and their lessons to us. *Humanities Research*, 17, 161-187.
- _____. (2019). Commons, the golden rule

- and sea fields in jeju. *ECO*, 23(1), 7-33.
- Choe, H., & Kim, S. P. (2014). Wind in jeju: the management method adopted common pool resources theory. *Tamla Culture*, 46, 97-126.
- Choe, H., & Tai. H. S. (2015). Commons research in taiwan-retrospect and prospect. *Economy and Society*, 108, 166-198. doi: 10.18207/criso.2015..108.166
- Choe, H., & Yun, S. J. (2017). Revisiting the concept of common pool resources: beyond ostrom. *Journal of Asian Sociology*, 46(1), 113-129. doi: 10.21588/dns/2017.46.1.005
- Dietz, T., Dolšák, N., Ostrom, E., & Stern, P. C. (2002). The drama of the commons. in Ostrom, E. et al.(Eds), *The drama of the common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Feeny, D., Berkes, F., McCay, B.J., & Acheson, J. M. (1990). The tragedy of the commons: twenty-two years later. *Human Ecology*, 18, 1-19. doi: 10.1007/BF00889070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243-1248. doi: 10.1126/science.162.3859.1243
- _____. (1994). The tragedy of the unmanaged commons.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9(5), 199. doi: 10.1016/0169-5347(94)90097-3
- _____. (1998). Extensions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280(5364), 682-683. doi: 10.1126/science.280.5364.682
- Harvey, D. (2011). The future of the commons. *Radical history review*, 109, 101-107. doi: 10.1215/01636545-2010-017
- Healy, R. G. (1994). The common pool problem in tourism landscap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3), 596-611. doi: 10.1016/0160-7383(94)90122-8
- _____. (2006). The commons problem and canada's niagara fall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2), 525-544. doi:10.1016/j.annals.2006.01.003
- Heenehan, H., Basurto, X., Bejder, L., Tyne, J., Higham, J. E. S., & Johnston, D. W. (2014). Using ostrom's common-pool resource theory to build toward an integrated ecosystem-based sustainable cetacean tourism system in Hawai'i.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3(4), 536-556. doi: 10.1080/09669582.2014.986490
- Holden, A. (2005). Achieving a sustainable relationship between common pool resources and tourism: the role of environmental ethic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3(4), 339-352. doi: 10.1080/09669580508668561
- Hong, D. H. (2019). Critical issues of energy democracy and the possibility of energy commons. *ECO*, 23(1), 75-105. doi: 10.22734/ECO.23.1.201906.003
- Huang, D. S., & Huang, Y. Y. (2014). Common-pool resources, eco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EAS Working Paper*, No. 14-A013. Taiwan: Institute of Economics Academia Sinica.
- Hwang, J. T. (2016). The implications of urban common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al urbanism.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9(2), 1-16. doi: 10.21189/JKUGS.19.2.1
- Jeong, Y. S. (2014). The theory, reality of commons and possibility. *ECO*, 18(2), 205-214.
- _____. (2016). Beyond the theory of resource management of elinor ostrom: Toward the political ecological approach

- to the commons. *ECO*, 20(1), 399-442.
- _____. (2017). Historical evolution of relations between commons and community : focused on the case of Dongbaek-dongsan-seonheul-ri in jeju island. *The Journal of Localitology*, 17, 119-163. doi: 10.15299/tj.2017.04.17.119
- _____. (2018). From decommonisation to re-commonisation. *Journal of Asian Sociology*, 47(2), 169-194. doi: 10.21588/dns/2018.47.2.002
- Johnson, C. (2004). Uncommon ground: the 'poverty of history' in common property discourse. *Development & Change*, 35(3), 407-434. doi: 10.1111/j.1467-7660.2004.00359.x
- Jung, N. S. (2020). Mangement of commons as a tourism resource: case study of the Darangyi paddy in gacheon, namhae, south korea. *GeoJournal of tourism and geosites*, 28(1), 175-190. doi: 10.30892/gtg.28114-461
- Kim, S. P. (2013). Jeju underground water as the common pool resource. *ECO*, 17(2), 41-78.
- Kim, S. T., Park, S. K., & Kim, D. H. (2016). *A study on tourism and role of government*.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 Ko, D. W. (2009). A model of sustainable rural tourism development for build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3(5), 411-431.
- Kwack, N. W. (2011).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right to the common spaces of the city. *Marxism* 21, 8(3), 202-220. doi: 10.26587/marx.8.3.201108.008
- Lee, H. Y., & Cha, S. H. (2004).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tourism indicator sets and its application guideline of the cave conservation park.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7(4), 331-352.
- Lee, M. H. (1996). Consideration of desirable definitions of public goods.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11(2), 19-48
- Lee, S. G. (2017).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tragedy of the commons and tourism common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5), 75-87. doi: 10.21298/IJTHR.2017.05.31.5.75
- Lee, S. G., & Park, M. S. (2011). *Understanding of tourism resources*. Seoul: Daewangsa.
- Lee, S. H. (2013). Publicness of tourism development: in the case of tourist site and tourist complex.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7(9), 11-28.
- Linebaugh, P.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정남영 역). 서울: 갈무리. (Originally published in 2008). doi: 10.1525/9780520932708
- Mancini, F., Leyshon, B., Manson, F., Coghill, G. M., & Lusseau, D. (2020). Monitoring tourists' specialisation and implementing adaptive governance is necessary to avoid failure of the wildlife tourism commons. *Tourism Management*, 81, 104160. doi: 10.1016/j.tourman.2020.104160
- Marcinek, A. A., & Hunt, C. A. (2019). Tourism and cultural commons in the ecuadorian amazon.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1-18. doi: 10.1080/14766825.2019.1591711
- McCay, B. J. (1995). Common and private concerns. *Advances in Human Ecology*, 4, 89-116.
- Moore, S., & Rodger, K. (2010). Wildlife tourism as a common pool resource issue: enabling conditions for sustainability governanc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8(7), 831-844. doi: 10.1080/09669582.2010.

- 483281
- Mortazavi, R. (1997). The right of public access in swede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3), 609-623. doi: 10.1016/S0160-7383(97)00010-8
- Ostrom, E. (2005).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doi : 10.1515/9781400831739
- _____. (2009). A general framework for analyzing sustainability of social-ecological systems. *Science*, 325 (5939), 419-422. doi: 10.1126/science.1172133
- _____.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윤홍근, 안도경 역).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Originally published in 1990)
- Ostrom, E., Dietz, T., Dolšak, N., Stern, P. C., Stonich, S., & Weber, E. U. (Eds.). (2002). *The drama of the commons*. National Academy Press.
- Paik, Y. G. (2017). The commons and welfare: toward a synthetic approach to crises of social reproduction. *ECO*, 21(1), 111-143.
- Pintassilgo, P., & Silva, J. (2007). 'Tragedy of the commons' in the tourism accommodation industry. *Tourism Economics*, 13(2). doi: 10.5367/000000007780823168
- Pirota, E., & Lusseau, D. (2015). Managing the wildlife tourism commons. *Ecological Applications*, 25(3), 729-741. doi: 10.1890/14-0986.1
- Romão, J., Okada, M., Machino, K., & Nijkamp, P. (2021). Destination management and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hrough the common lens of the commons. *Region*, 8(1), 75-95. doi: 10.18335/region.v8i1.286
- Stronza, A. L. (2010). Commons management and ecotourism: ethnographic evidence from the Amaz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4(1), 56-77. doi: 10.18352/ijc.137
- Yun, S. J., & Cha, J. H. (2009). A study on sustainable management of village forest based on re-understanding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focused on the lesson from the Songrim-ri.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19(2), 125-166.
- Vail, D. & Hultkrantz, L. (2000). Property rights and sustainable nature tourism: adaptation and mal-adaptation in Dalarna (Sweden) and Maine (USA). *Ecological Economics*, 35(2). 223-242. doi:10.1016/S0921-8009(00)00190-7
- Zagarkhorloo, U., Heijman, W., Dries, L. & Batjargal, B. (2021). Managing herder-community-based tourism: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n integrated social-ecological system. *Sustainability*, 13(4001). 1-19. doi: 10.3390/su13074001

국문참고문헌

- 고동완(2009).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개발 모형. 『관광학연구』, 33(5), 411-431.
- 곽노완(2011). 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8(3), 202-220. doi:10.26587/marx.8.3.201108.008
- 김상태 · 박상곤 · 김동현(2016). 『관광과 정부의 역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선필(2013).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공동 자원 개념의 도입: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7(2), 41-78.
- 백영경(2017). 커먼즈와 복지. 『환경사회학연구 ECO』, 21(1), 111-143.
- 안도경(2012).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한국경제포럼』, 5(3),

- 117-129.
- 안새롬(2020).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대기 커먼즈를 위한 시론. 『환경사회학연구 ECO』, 24(1), 333-370. doi: 10.22734/ECO.24.1.202006.009
- 윤순진·차준희(2009).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릉 송림리 마을숲 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9(2), 125-166.
- 이명훈(1996). 바람직한 공공재 정의에 대한 고찰. 『재정논집』, 11(2), 19-48
- 이석호(2013). 관광개발의 공공성: 관광지와 관광 단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7(9), 11-28.
- 이순구·박미선(2011). 『관광자원의 이해』. 서울: 대왕사.
- 이승길(2017). 공유지의 비극과 관광공유재의 함수 관계. 『관광연구저널』, 31(5), 75-87. doi: 10.21298/IJTHR.2017.05.31.5.75
- 이희연·차승훈(2004). 동굴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지표 설정과 적용방안. 『관광학연구』, 27(4), 331-352.
- 정영신(2014). 공유의 이론과 현실, 그리고 가능성. 『환경사회학연구 ECO』, 18(2), 205-214.
- _____(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399-442.
- _____(2017).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제주도 선흘리 마을과 선흘곶-동백동산 관계를 사례로. 『로컬리티 인문학』, 17, 119-163. doi: 10.15299/tjl.2017.04.17.119
- 최현(2013).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징. 『경제와사회』, 98, 12-39.
- _____(2014). 일본의 공동자원 연구 현황. 『인문학연구』, 17, 161-187.
- _____(2019). 공동자원의 새로운 정의와 제주의 공동자원: 바다밭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3(1), 7-33. doi: 10.22734/ECO.23.1.201906.001
- 최현·김선필(2014). 제주의 바람: 공동자원론적 관리 방식. 『탐라문화』, 46, 97-126. doi: 10.35221/tamla.2014..46.004
- 최현·파이싱성(2015). 공동자원론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제와사회』, 108, 166-198. doi: 10.18207/criso.2015.108.166
- 홍덕화(2019). 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과 에너지 커먼즈의 가능성. 『환경사회학연구 ECO』, 23(1), 75-105. doi: 10.22734/ECO.23.1.201906.003
- 황진태(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1-16. doi: 10.21189/JKUGS.19.2.1